

유니버설 패션 협회의 추천상품 선정

일본의 유니버설·패션협회(Universal Fashion 協會)는 6개월만에 개최된 심사회에서 협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3점의 “협회추천상품”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.

심사기준은 ①유니버설·패션 즉 세계적 패션으로 보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유행상품 ②상품의 패션성 ③사용자 또는 옷을 입는 사람 입장에서 개발된 상품 ④상품기능과 다른 상품과 차별화된 포인트 등이며, 각 심사위원들은 이들 심사항목에 따라 심사하여 “사용자 또는 착용자와 더불어 만들어진 상품” 등이 선정되었는데, 이들 상품은 ①팔 또는 다리의 소프트·서포터(soft supporter) ②신축가공된 부인복 ③니트의 세미·오더·시스템(semi-order system)이다.

팔이나 다리의 소프트·서포터(보호대)는 환자나 노약자를 간호하는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로서 오랜 착용으로도 피부가 상하지 않고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는데 편하고 부드러운 면 니트제의 보호대로서 간호용 의류메이커 “오가와”가 개발하였다. 힘이 없는 환자나 노약자도 손으로 쉽게 착탈(着脫)이 가능하며, 팔·다리 뿐만 아니라 발에도 사용할 수 있는 “프리·사이즈(free size)”로서 6가지 색상이 상품화되어 있다.

신축가공이 되어 있는 부인복은 요철·신축가공(凹凸·伸縮加工)으로 옷을 입어서 편하고 기분이 좋은 부인복으로서, 재봉사(裁縫士)가 개발하였는데, 이제까지는 플리츠(pleats 주름)가공이 세탁에 약하여 폴리에스테르 100%에서만 가능하였으나, 독자적인 자수기술로 천연섬유의 옷을 가정세탁하여도 플리츠가 유지되고, 팔을 위로 올릴 수 없는 사람도 착탈이 가능하며, 소매를

걸어 올려도 흘러내리지 않게 되어 있다. 상품으로서는 니트제품 같은 블라우스, 스커트, 가디건, 원피스 등이 있다.

니트의 세미·오더·시스템(semi-order system 반 또는 준 맞춤체제)은 “팅크·코포레이션”에서 개발하였는데, 니트지가 워낙 신축성이 커서 사이즈에 따라 옷을 맞추기가 어려웠었는데, 몇 개의 표준치수로서 맞춤 옷과 비슷하게 모든 사람의 몸에 맞는 “저스트·피트 (just fit 꼭 맞춤)”를 제안하고 14개 사이즈로 모든 고객의 몸에 꼭 맞게 되어 있다.